

8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에다움도서관 / 백정희	레드브레스트/요 네스뵈/비채	왜 죽음에 대한 공포는 나이가 먹을수록 심해지는걸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
2	와이시티작은도서관 / 김경진	봉제인형 살인사건 / 다니엘 콜 / 북플라자	수사관 생활을 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괴물을 보았다. 핀레이는 가장 잔인한 흉악범들에게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바로 눈빛이었다. 지금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남자도 감정이라고는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3	마상공원작은도서관 / 김은미	가재가 노래하는 곳/델리아 오언스/살림	습지 속 여기저기서 진짜 높이 끈적끈적한 숲으로 위장하고 낮게 포복한 수령으로 꾸물꾸물 기어든다.
4	그루터기 작은도서관 / 이병무	옥스퍼드의 4증인/이언 피어스, 김석희 옮김/중앙 M&B	어느 누구도 자신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무지에서 나온 말이니깐요.'
5	화전작은도서관 / 임희정	애프터쉬즈곤/카밀라 그레베/크로스로드	말린, 당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전쟁과 기아를 피해 탈출해야 했던 게 당신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6	햇빛21작은도서관 / 윤영연	지문/이선영/비채	세상에는 환한 빛 아래 숨겨진 어둠의 불씨가 너무 많았다.
7	호수공원작은도서관 / 김연희	맥파이 살인 사건/앤서니 호로비츠/열린책들	탐정소설의 핵심은 진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불확실로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른면 자동적으로 속이 시원해지지 않는가.
8	고양작은도서관 / 심은경	요리코를 위해/노리즈키 린타로/모모	이 수기는 걸로만 자살미수를 연기해 동정을 사고 연명하려는 알팍한 의도로 쓴 게 아냐. 자신이 공들여 만든 시나리오가 유일한 진실이라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이 수기를 남긴 거야. 죽음으로 수기 내용의 정당성을 보증하려고 했지.
9	모당공원작은도서관 / 김정희	완전한 행복/정유정/은행나무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더해가면, 그 인생은 결국 행복한 거 아닌가. 아니,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8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책돌이도서관 / 신화숙	칠칠단의 비밀 / 방정환 글 / 김병하 그림 / 사계절	1925년~1927년 잡지 [어린이]에 연재되었던 「칠칠단의 비밀」과 「동생을 찾으러」를 엮은 책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탐정소설에 고흥 출신 김병하 작가가 삽화를 그렸다. 일본인 곡마단에서 자란 상호가 중국으로 팔려간 여동생 순자를 지혜와 용기로 구해내는 「칠칠단의 비밀」, 여동생을 납치해간 중국사람과 쫓고 쫓기는 모험을 하면서 동생을 구하는 「동생을 찾으러」~방정환 선생님은 뺨긴 나라의 어린이가 고난에 굴하지 않고 통쾌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 겨레의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자 했다.
2 아이숲어린이도서관 / 문상희	기나긴 이별 / 레이먼드 챠틀러 / 열린책들	하드보일드 소설의 대표작이라는 '기나긴 이별'. 간결한 문체, 시니컬한 유머, 냉혹한 현실묘사 등이 폭 빠져들게 한다. 도시의 외로운 독신남 '필립말로'가 매력적이다. 다소 요즘 정서에 맞지 않은 여성인물들이 나오지만 원래 하드보일드 전형성이니 그러려니 하고 읽는다.
3 책문화공간 봄 / 위명화	눈먼자들의 도시	한 명을 제외하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실명을 한다. 사람들은 처참하게 문명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악한 본성만이 남게 된다. 그 곳에서 혼자 눈이 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의사의 아내가,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모습들이 공감되었다. "내 목소리가 바로 나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소."

8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책마실도서관	기억 전달자/ 로이스 로리 글/비룡소	<p>모두가 잃어버린 감정을 찾기 위해 나서는 열두 살 소년의 이야기.</p> <p>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가족을 가지고 동일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곳. 이곳에서는 열두 살이 되면 위원회가 직위를 정해준다. 열두 살 기념식을 앞둔 조너스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런데 조너스에게 내려진 직위는 "기억 보유자". 과거의 기억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선임 기억 보유자는 이제 기억 전달자가 되어 조너스를 훈련시키기 시작한다. 조너스는 효율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희생된 진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p>
2	개인회원/손수정	혐오자살/조영주/캐비닛	<p>혐오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다.</p> <p>'다름'을 이유로 누군가를 멸시하고 적대하는 행위에서, 또 그러한 행위를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태도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공모되는 것이다.</p> <p>혐오로 인해 사회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면, 언젠든 통제하기 어려운 집단적 광기와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p>
3	해봄도서관	한국의연쇄살인/표창원/랜덤사우스	<p>한국의 연쇄살인 표창원 랜덤 창원랜 등 하우스 1970년 연쇄살인부터 2000년 유영철사건까지 연쇄살인의 정의와, 종류, 조건까지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15종류의 범죄를 이야기한다. 에필로그에 확대하지않는 부모를 강조한다. 뜻있는 문장을 소개한다.</p> <p>*"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버텨내기 힘든 여건 속에서 화내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을 건네는 일은 대통령 되기보다 어렵고 고시 합격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다. 돈과 권력의 허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잣대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쇄살이를 분석하며 형성된 시선으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 부모님만큼 고마운 분은 없다.*"</p>
4	개인회원/김경희	고서 수집가의 기이한 책 이야기 가지야마 도시유키 (지은이),이규원 (옮긴이), 북스피어	<p>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책은 마물이에요. 여기에 홀리면..... 그래요, 책벌레라고 하나요. 이놈이 들러붙으면 절대로 헤어날 길이 없지요. 나처럼 책 한권 찾으려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바보도 있고, 책 한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자도 있어요. 이는 절대로 활자의 매력이니 뭐니 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책이에요. 종이책이라고요. 그런데 책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사도 씨처럼 장정하는 낙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재미있지 않습니까? 뭐, 마니아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심리겠지요. (p.270~271)</p>
5	예성 작은도서관	죽여 마땅한 사람들 / 피터스완슨	<p>살인은 분명 나쁜 짓이지만, 저자는 뛰어난 구성과 매력적인 캐릭터로 살인의 당위를 만들어낸다. 다시는 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없게끔 만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자신이 있다면, 시체도 완벽히 숨길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우리가 릴리를 비난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p>

8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정예서	죽은자의 집청소 / 김영사 / 김완	자신을 죽일 도구마저 끝내 분리해서 버린 그 착하고 바른 심성을 왜 자기 자신에겐 돌려주지 못했을까? (p.27)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	죽을 뻔 했던 이야기/이주영 글/김홍모 그림/협북스	바닷 속 물길이 바뀌면서 바닷말이 내 다리를 휘감아 버린거예요. 몸에도 차가운 바닷말이 척척 휘감겼어요. 창칼과 갈피를 든 손을 휘저으면서 몸을 휘감은 바닷말을 자르려는데, 미끌어지기만 하고 반도 안 잘라져요. '큰일 났다.'하고 놀라면서 손을 휘젓고 몸부림을 치면서 빠져나가려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많은 바닷말이 몸을 휘감는 거예요. 몸을 조여 오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순간~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채은아	범인없는 살인의 밤 / 히가시노 게이코 / 알에이치코리아	"실은 시신의 식도에 껌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다카오 군에게 물어봐도 유키코씨가 껌을 씹는 건 보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껌은 당신과 마사키씨, 두 사람이 시신을 처리하러 가기 전에 소스케씨가 마사키씨에게 건네준 거지요. 그때 시체였던 유키코씨가 어떻게 그 껌을 씹을 수 있는 겁니까?"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박현진	종의 기원 / 정유정 / 은행나무	"그제 새벽....." 해진의 눈이 연속 촬영이라도 하듯 내 눈을 서서히 가로질렀다. 시선의 움직임이 너무 더뎌서, 내 동공이 태양계만큼이나 넓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피 냄새에 잠을 깬어." (p.338)
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혜령	종의 기원 / 정유정 / 은행나무	세상에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유의 여자들이 있다. 그녀들은 미소를 짓는 순간에도, 미소가 걸린 입을 쪽 늘여서 양쪽 위에 걸어주고 싶어 만든다.
6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이은주	13계단 / 다카노 가즈야키 / 황금가지	"나도 둘이나 죽였어.." "사형집행. 그건 교도관의 업무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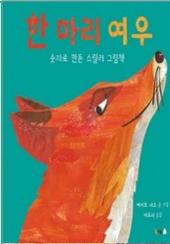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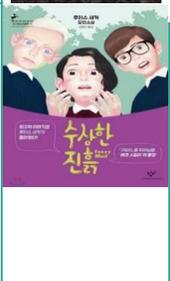
8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기쁨이 자라는작은도서관/ 안혜영	버닝룸 / 마이클 코넬리 / 알에이치코리아	헨리 보슈 시리즈를 탄생시킨 마이클 코넬리의 작품 영원한 미제 사건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능한 형사 헨리보슈의 활약을 이야기한다. 다른 추리소설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치밀하게 사건을 다뤄가는 헨리보슈의 수사력이나 심리 변화를 잘 묘사하고있다. "유능한 형사라면 가진 불길. 이를 정의라 여겨도 좋고 악한 인간들이 언제까지나 법을 피해 다닐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 불러도 좋다."라는 보슈의 말처럼 이번 작품에서는 절대 악이 없듯, 영원한 미제도 성립할 수 없음이 통쾌하게 드러난다. 무더운 여름밤 통쾌한 범죄추리 수사물을 한편 보고싶다면 강추한다.
2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유선화	밥 안 먹는 색시 / 권사우 그림 / 길벗어린이	도대체 누가 쌀을 가져가는 걸까?
3	우디안 나무그늘 작은도서관 /이은경	로봇교사 / 이희준 / 별숲	우리가 살면서 맺는 인연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는 내 삶에 들어온 사람을 아껴야 합니다. —2권 (p.249)
4	용강동작은도서관 / 지현정	종의 기원 / 정유정 / 은행나무	파도가 몸을 뒤집었다. 나는 사지를 풀어놓고 흔들리는 물결 위에 드러누웠다. 눈보라가 걷히고 하늘이 열렸다. 별들이 가까이 내려왔다. 빛이 이마에 닿는 순간 어떤 목소리가 은밀하게 속삭여왔다. 어머니가 울었어.
5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 조아라 (그림책수다 동아리)	집안에 무슨 일이 / 카텔리나고렐리크 글그림 / 올리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6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채정숙	도둑을 잡아라! / 박정섭 / 시공주니어	아이들의 목격담을 듣고 도둑을 잡으러 가는 경찰. 과연 도둑을 잡았을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7	작은도서관 웃는책/김자영	이탈리아구두 / 헤닝만켈 / 뮤진트리	"네가 여기 와있어서 참 좋구나. 모든 것이 선행해졌어. 예전에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그게 나라는 걸 알겠다..."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8	흥부네그림책도서관 /김진희	그림자의 섬 / 다비드 칼리 글, 클라우디아 팔 마루치 그림 / 웅진주니어	꿈을 꾸면, 텅 비어 있는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깊고 깊은 곳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어둠만 보여요.
9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권영미	완전한 행복 / 정유정 / 은행나무	행복은 뽀샵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는거. 책을 읽고서: 주인공이 행복을 위해 불행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과정의 스릴러물입니다. 더운 여름 몰입도 있게 읽기 좋았어요.
10	다운작은도서관 /최서윤	플립 / 웬들린 밴 드라닌 / 예프	누구나 인생에서 단 한 번 무지개 빛깔을 내는 사람을 만난단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되지.

8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인천지부			
소속 / 이름	책 사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안수진		소년 프로파일러와 여중생 실종사건/ 박기복 지음 / 행복한 나무	'소년 프로파일러' 이야기는 청소년이 처한 가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소설입니다
2 늘푸른어린이도서관 / 박소희		열하광인/ 김탁환/ 민음사	이 잡설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고 꽃미치광이 김진도 아니며 백탑파는 더더욱 아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야기를 이끄는 주인공은 불행을 몰고 다니는 금서 [열하일기]다. 나비를 잡고 싶은가. 몸이 내는 소리를 모두 삼키며 다가설 일이다. [열하일기]가 몰고 다닌 불행의 비밀을 알고 싶은가. 어렵네 힘드네 따지지 말고 침묵으로 타오르는 글자를 하나씩, 나비 날개를 쥐듯, 집어 든 후 꿀꺽 삼킬 일이다.
3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유영란		0시를 향하여/ 아가사 크리스티/ 황금가지	이 모든 정황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가는 거야.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때 치달는 거지. 모든 것이 0시를 향해 모여드는 거야....
4 짱뚱이어린이도서관 / 이소운		살아생전 떠나는 지옥관광/ 김태권/ 한겨레출판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옛날이야기를 좋아해서 그렇다. ... 둘째는.... '지옥'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빚대 자주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한국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내가 지옥 여행에 대한 책을 쓰는 둘째 이유이다.

5		있지만 없는 아이들/ 은유/ 창비	<p>저는 한국에서 유령으로 지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p> <p>낯선 존재는 두려움을 유발하고 그들도 우리와 다른없는 '같은 사람'임으로 느끼려면 시간과 노력이 든다.</p>
6		한 마리 여우/ 케이트 리드 그림책/ 북극곰	백 마리 성난 암탉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그리고.....
7		내 이름은 빨강/ 오르한 파묵/ 민음사	눈이 먼다는 건 고요해지는 것이라네. 내가 조금 전에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합쳐지면 눈뭍이 오지. 그림이 가장 심오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신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라네.
8		순이삼촌 / 현기영/창비	<p>제주 4.3사건 당시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 일어난 양민 학살 사건을 작품화하였다. '순이삼촌'의 자살로 인하여 의문 추적 형식으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p> <p>"면에서는 이 집에 고구마 멧가마 내고 지 집에 유채 멧가마 소출 냈는지는 알아가도 그날 죽은 사람 수효는 이날 이때 한번도 통계 잡아보지 않으니, 내에 참. 내 생각엔 오백명은 넘은 것 같은디. 한 육백명 안되까 마썸? 한번에 오륙십명씩 열한번에 몰아가시니까."</p>
9		수상한 진홍/ 루이스새커/ 창비	<p>마음 한구석으로는 자신이 정말로, 정말로 착하면 발진이 사라지고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p> <p>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기도 했다.</p> <p>만약 병이 낫지 않으면, 용기와 인내와 품위를 가지고 세상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랐다. (p.192)</p>

8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범지기마을10단지푸른작은도서관/오유미	다빈치 코드/댄 브라운/문학수첩	추리 소설이라 함은 설록 홈즈 시리즈가 가장 먼저 떠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고전으로 코난 도일 부터 추리소설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댄 브라운의 소설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하나의 살인사건에서 시작하지만 사건의 실마리는 기호학자 로버트 랜던 교수의 역사적 작품 해석을 따라 풀린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던 작품들 혹은 한번쯤 여행 다녀온 그곳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가 단순히 마음을 사로 잡는다. 특히 지금 처럼 여행이 어려운 시절에는 <다빈치 코드>의 책과 영화로 여행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따라 가는 추리 여행은 사건 해결을 과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더운 여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함께 즐겼으면 한다.
2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김은정	겍쟁이 꼬마유령 부우/브리지 민느/웅진주니어	꼬마 유령 부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령 일을 하러 나가요 꼬마 유령 부우는 사람 놀래는 유령 일을 해야하는데 겁이 많아 먼저 놀라기 일쑤예요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 강도를 보고 놀라고, 번기가 물을 빨아들이는 모습에 질겁을 해요 깜깜한 밤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고, 푸르스름한 달빛도 으스스해 보여요.겍쟁이 꼬마 유령 부우가 벌이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책 유쾌하고 재미있는 책을 꼬마친구들과 만나보세요
3	초롱이네도서관/오혜자	탐정동아리 사건일지/김현서 시집/창비교육	사건은 매번 학교에서 일어난다' '사건을 키우는 건 집이다' '한통속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 사건의 발생과 그 전말을 쫓는 탐정의 사선으로 쓰여진 연작시입니다. 탐정은 그 유명한 중2입니다. 세상만사가 뼈뺏하게 보이는 와중에도 예리한 통찰이 있습니다. 독특한 구성의 '청소년 시' 입니다.

8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호남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여우네도서관/김명숙	모비딕/허먼 멜빌/작가정신	눈을 감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느낄 수 없다.
2	여우네도서관/김명희	마녀/강풀/재미주의	마지막 법칙. 그녀 곁에서 멀어지지 말 것.
3	책마루어린이도서관/김경희	귀신새 우는 밤/오시은/문학동네어린이	근심과 걱정은 너희 몫이 아니다. 세상에 재미나고 신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것을 쫓아야 하는 거다.